

## 부공저

### 이 시대의 '사랑'

미국 시카고의 한 여성 동화작가(51세)는 암 판정을 받은 후 죽음을 앞두고 최근 뉴욕타임스의 독자칼럼에 글을 기고했다.

제목은 '내 남편과 결혼해 보세요.' 글은 모든 결혼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개 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잘 맞을 누군가가 그 글을 읽고, 남편을 알게 됨으로써 남편에게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쓴다고 했다. 그러서는 죽음을 앞두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는 '남편의 여자'를 찾아주고 싶었다. 그녀와 동갑나기

허용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프랑스 대선주자 39세 마크롱의 사랑과 영화감독 흥상수의 사랑은 '별난' 사랑으로 눈길을 끈다. 전자는 아내가 엄마뻘이어서 화제가 되고, 후자는 아내 있는 남자의 사랑 즉 불륜이어서 비판을 받는다. 인기가 필요한 전자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껏 즐기고 있을 것이고, 관심에서 놓고 싶은 후자는 화제에서 밀려나기만을 바랄 것이다. 흥 감독의 '불륜' 역시 프랑스인들의 눈으로 보면 별 일이 아닐 수 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종 상  
(청계사 회주)

###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도 본질은 '사람 일'

### 갈등은 애착과 집착 되어 '고통'을 낳을 뿐

로 24살에 만나 26년 결혼생활을 한 남편은 변호사로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키 178cm, 몸무게 73kg의 잘 다져진 체격, 잘 생긴 얼굴에 패전 감각 넘치는 멋쟁이, 아마추어 화가이자 콘서트를 즐기며 여행 같이 다니기 딱 좋은 낭만적인 남자, 요리 잘 하고 집안 곳곳 손질 잘 하며 아이들에게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아빠...

그렇게 '남편 중매'를 서늘고 열혈 후인 지난 13일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황혼이혼'이 날로 증가하는 세대에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의 본질을 확인시켜 준다. 사랑이 지고 지순 할 때 조선시대의 사랑과 21세기 미국의 사랑이 다를 수 없다.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이 시대와 저 시대가 다르지 않지만, 어떤 '뉘는' 사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고정적이지 않다. 사랑은 연령과 인종 그리고 성별을 초월 한다 해도 그

제3자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이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사랑의 문 제만은 아니다. 그들을 아픔으로 내몰아도 어쩔 수 없을 만큼 나의 사랑은 불가피한가, 돌아보는 자세는 필요하다.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 아난존자는 용모가 매우 빼어나다. 걸음을 하다 마다가나에게 물을 청해 마시게 된 아난에게 반하고만 그녀는 아난과 결혼하지 못하면 죽어 버리겠다며 기원정사로 찾아왔다. 부처님은 마다가나에게 아난과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자 마다가나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애욕을 떠나 아라한이 되었다.

사랑으로 인한 갈등은 애착과 집착이 되어 고통으로 돌아온다.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고자 한다면 집착은 고통을 낳을 뿐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자기희생은 이타적 사랑이다.

## 인연 있는 선망조상 극락왕생 위한 천도재

### 오탁악세...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소멸...

지난 3월 12일 10시 법당에서 신도회 (회장 흥무상행) 주관으로 각자의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의 영혼을 달래며, 극락왕생을 위한 지극정성 기도를 1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 했다.

경전에 의하면 천도재를 올리면 7분의 1 공덕은 망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본인이 받는다고 했다. 정타스님의 구명의식에 이어

사시기도를 마치고 영가님들을 위한 승무단의 승무를 마치고, 주지 성행, 정타, 성견, 정우, 명원스님의 다라니, 광명진언, 금강경 독경이 청계사 마당에 울려 퍼져 청계사에 오신 영가님들을 천상에 이끄는 듯 했다.

이날 주지스님은 "열반절을 맞이해 천도재를 하게 되어 더욱 뜻 깊고 회향도 잘 되었다. 오탁악세(五濁惡世, 겁탁(劫濁: 시대의

더러움), 견탁(見濁: 사상, 견해가 사악한 것), 번뇌탁(煩惱濁: 탐, 진, 치로 마음이 더러운 것), 중생탁(衆生濁: 함께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러움), 명탁(命濁: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 5가지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소멸하고 이를 부르는 영가와 또 그 영가와 인연 있는 영가는 지금 지극정성으로 마련해 놓은 법단에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천상의 세계로 가시고, 극락왕생하여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법문 했다.

선망조상을 비롯하여 유주무주 고훈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함으로써 학업성취, 업장소멸을 기원하며 조상님들의 음덕을 더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천도 의식을 성대하게 마쳤다.

(사진 · 글 황청량님)



◇인연 있는 선망도상님께 지극정성 마련해 놓은 법단과 승무로 고훈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재 봉행



### 생활의 지혜

## 이야기 백유경

200리 길을 120리로 줄여 준 임금

### 멀고 가까운 개념은 상대적...

#### 민고 생사 건너야

○...세상의 온갖 지식을 습득하여 많이 알고 있다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 종교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모든 종교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 나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며, 종속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 맑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인과 응보를 믿는다.

○...멀고 가까운 개념은 상대적이다. 믿음이 희미하여 흔들릴 때는 바로 곁에 있는 목격지도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법이다. 믿음이 확실할 때는 아무리 멀리 있는 목격지이라도 항상 가까이 있어 보인다. 현명한 사람은 태산같이 우뚝하여 어떤 장애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는 믿음을 경건하게 성숙시킨다.

옛날 어떤 동네가 있었다.

그 동네는 왕성에서 200리가량 떨어져 있었다.

그 동네에는 맞난 물이 있었다. 왕은 동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날마다 그 물을 왕성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몹시 괴로워하며 차라리 그 곳을 피해 멀리 떠나려 하였다.

그때 마을의 촌장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왕에게 아뢰어, 200리를 120

리로 고쳐 너희들이 다니기 쉽게 하여 고단하지 않게 하리라."

그는 곧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촌장의 청대로 200리를 120리로 고쳤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본래의 200리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끝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해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바른 법을 뒤야 행하고 다섯 가지 나쁜 길을 건너 깨달음을 향하다가 마음에 실증을 내어 곧 그것을 버리고 이내 생사의 망에 지고 다시 나아가지 못한다. 법의 원인 부처님께서는 큰 방편으로 일승(一乘, 佛乘)의 법을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의 세 가지로 분리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면 소승(小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것은 행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선을 뒤고 덕을 키워 생사를 건너고자 한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삼승(三乘)이란 없고 하나의 길만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을 버려 버리지 않으니 그것은 저 마을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 : 10,000원 100부 : 20,000원

-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문성행 50부, 조항보 50부
- ♣ 안양교도소 박우진 1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김희용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는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영호 50부, 김대희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 : 청계사 출판부)

## 제8회 서울·경기 연꽃문화제

- 일 시 : 불기2561년(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전 10:00 ~ 오후 3:30
- 장 소 : 청계사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 참가대상 : 서울·경기지역 어린이·중학생이면 누구나! (유치부 ~ 중학교3학년)
- 참가부문 : 글짓기(운문/산문) : 초등부 3~6학년  
그리기, 크레파스화 : 유치부 1~2학년 / 수채화 : 초등부 3~6학년·중학생
- 준 비 물 : 필기도구, 그림도구 등 필요한 물품, 개인간식 물, 돗자리 등  
※점심공양은 청계사 공양간에서 준비합니다.
- 프로그램 : 체험부스·공연마당
- 참가신청 : 2017년 4월 2일 (일)까지 전화나 팩스로 접수(청계사 전화 접수도 가능)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사단법인 동련
- 주 관 : 사단법인 동련 서울·경기지구 / 의왕·안양·군포 사암연합회
- 시 제 : 당일발표
- 청계사연락처 : 031-426-2348 / 팩스 031-426-3666  
※행사당일 비상연락처 : 010-4899-1826 / 031-426-2348
- 참고 : 당일 차량 운행은 인덕원역 3번 출구로 나와 100m지점 사조참치 앞 9시, 10시 차량 이용바랍니다.

사단법인 동련 서울·경기지구 회장 성행

## 산신기도 안내

- 기도도를 통해 다짐 생애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소구 소원하시는 바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산신기도를 봉행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17년 4월 10일 (음력 3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철 야 : 2017년 4월 11일 (음력 3월 15일) 화요일 저녁 9시부터~새벽 4시
- 회 향 : 2017년 4월 12일 (음력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비 : 3만원
- 온라인 : 109-030451-01-055(기업은행)
- 예금주 : 청계사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합장

## 봄맞이 성지순례

경허대선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봄 성지순례가 관음회 주최로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불법이 깃든 성지를 찾아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는 성지순례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17년 4월 6일(목요일) 오전 8시 출발
- 순례지 : 충남 서산 부석사, 개심사, 간월암
- 동참금 : 4만원
- 출발장소 : 인덕원역 3번출구 미가참치 앞
- 접수처 : 종무소 031)426-2221,2348  
관음회 회장 (만덕화)010-6308-7097  
관음회 총무(여경수)010-6297-3111

청계사 관음회



### 덕민스님 선사

#### 하나가 만상을 꿰어 묘하고 밝네

육궁사도엄선경 (慾窮斯道俺禪) 도를 깨닫기 위해 선실 문밧장 거니  
 일관천수요홀명 (一貫千殊妙忽明) 하나가 만상을 꿰어 묘하고도 밝네.  
 무상가명최정박 (無相可名崔鄭朴) 따로 죄씨 정씨 박씨 이름 붙일 것 없고  
 유신능체마우경 (有神能體馬牛鯨) 말도 소도 고래도 깨달으면 신통을 부리네.  
 동한열혈천호흡 (冬寒夏熱天呼吸) 겨울 춥고 여름 뜨거운 하늘이 숨 쉴이요  
 엽락화개지사생 (葉落花開地死生) 잎 지고 꽃 피는 땅이 죽고 태어남이로다.  
 만상삼라도자기 (萬像森羅都自己) 만상 삼라 모두 내 자신이라  
 허수출호만치행 (何須出戶驪馳行) 무엇하러 집을 나가 부질없이 쏘다니랴

#### 보우스님 오도송(悟道頌)

선(禪)이란 깨달음이요, 철학이고 절대 진리이며, 시(詩)는 문학이요 예술이지만, 그러나 선시는 선과 시가 둘이 아닌 '시선일규(詩禪一揆)'입니다.  
 시는 선객을 위해서 꽃을 수놓는 비단을 빌려주고(시위선객첨화금 詩爲禪客添華錦), 선은 시인에게 옥을 끊을 수 있는 칼을 빌려준다.(선위시가절옥도 禪爲詩家切玉刀)"  
 선은 너와 나의 관계를 지위버려 산에 가면 내가 산이 되고 물을 보면 내가 물이 되며 꽃

표현합니다.  
 깨달은 선지식들은 자연을 자기화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자연의 질서에 의해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시이며, 진리는 밖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보우스님의 오도송 선시는 천지적이고 우주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관(一貫)'이라는 말은 '만법일귀하처(萬法一歸何處)'라는 유명한 화두입니다. 일관은 2500년 전 《논어》에 나오는 말

### 선은 마음 깨달음, 너와 나 천지우주 하나의 모습 자연과 교감, 깨달음 얻으면 바로 우주의 주인

을 보면 꽃과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꽃이 되고 내가 산이 되는 것이 선(禪)이며, 내 마음에 맑게 찌꺼 하나가 될 때 하나의 광명(光明)이 됩니다. 우주는 삼라만상 그 자체가 바로 광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달마스님의 마음과 육조스님의 마음이 서로 광명으로 통해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밀밭당이 드러나 주관과 객관 이 서로 뺨 뿔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며, 불교를 모르면 우리의 행복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시비분별도 괴로운 스트레스도 보검으로 다 잘라내야 합니다.  
 우주라고 표현되는 코스모스도 선에서 보면 여러분마음이 외형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가 선과 교가 무엇인지 서로 논하게 되었을 때 초의선사는 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방 창문에는 소나무 위에 달을 머금고 (창함송상월 흡승松上月).  
 내 집안은 시냇물 밑 하얀 구름에 섞이네. (이집간저은 羅纏閣底雲)"  
 달과 스님의 관계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광명으로 나와서 하나입니다. 계곡을 건너가는데 파란 물과 하얀 구름이 걸어가는 짙신에 섞여 나오고 계곡 물 속에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있습니다.  
 선시는 이렇게 일반 시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탈시(脫詩)입니다.  
 선은 마음의 깨달음이고 마음의 깨달음은 너와 나의 관계, 천지 우주와 나의 관계가 하나의 모습으로 찌꺼 이룸담고 깨끗한 여운을

인데 공자의 수제자 증자의 도가 무르익었지만 하나가 풀리지 않자 그 하나를 깨우쳐 주는 대목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피는 것은 땅이 태어났다 죽었다하는 것과 같고, 순환하는 이치로 볼 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땅이 죽고 살며, 하늘이 호흡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데, 이 오도송은 최, 정, 박(崔, 鄭, 朴) 사람의 이치 말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일관지 화두로 묶어 풀이낸 선시입니다.  
 눈앞의 삼라만상, 몸을 바꿔 다시 또 태어나는 이 몸, 돈과 명예는 그저 왔다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며, 오직 내 마음이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알면 감명도 오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으며, 선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익히고 깨달음을 얻으면 내 얼굴, 내 팔자가 달라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주의 주인입니다.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교 학장>

## 이 시대 우리들의 '화두' 회주 종상스님의 '선문염송' 강설

### 제52강 南泉의 一圓相과 異類中(1) (남천의 일원상과 이류중)

이번 이야기는 南泉(남천)의 一圓相(일원상)이다.  
 『南泉(남천)이 歸宗(귀종), 蕪谷(마곡)과 같이 忠國師(충국사)를 뵈오려 갈 때에 땅에 一圓相(일원상)을 그려놓고 말하였다. 「이것을 알아맞히면 가겠다.」  
 『歸宗(귀종)은 圓相(원상) 가운데 들어왔고, 蕪谷(마곡)은 문득 女人(여인)과 같이 암전히 예배를 하였다. 남천이 말하되, 이러면 가지 않겠다. 「귀종이 왜 그러십니까?」하니, 남천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되돌아왔다.』  
 남천은 한 개 圓相(원상)으로써 歸宗(귀종)과 蕪谷(마곡)을 한꺼번에 點檢(점검)하였다.  
 歸宗(귀종)과 마곡은 보기 좋게 한 저 울대에 동동 매어 달리고 말았다.  
 어찌 그뿐인가! 南泉(남천)의 하는 짓도 또한 속스럽기 짝이 없다. 다시 돌아설 길이 없는 것이 아닐까? 원상은 무

슨 원상인가? 어찌 원상 아닌 것은 그렇게 創出(창출)할 줄 몰랐던가.  
 이 말도 오히려 웃음엿 것에 지나지 않지만 보라! 佛印元(불인원)은 『歸宗(귀종)과 마곡이 그 원상을 보고 팔을 짓고 떠나버렸다던 남천은 다시 꼼짝할 재주가 없었을 것이라』고 頌(송)하였다.  
 또 天童覺(천동각)은 「내가 만일 그 당시에 남천의 그린 원상을 보았다면 문득 몽개버렸을 것이다. 남천의 寶窟(과굴)만 때려 부술 뿐만 아니라, 귀종의 몸 부질 곳을 얹어 버리고, 또한 마곡이 재주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을 것 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南泉(남천)의 見花幻話(견화 환화)다.  
 『南泉(남천)이 陸巨大夫(육구대부)와 함께 이야기할 때에, 大夫(대부)가 말하였다.  
 「肇公(조공)법사가 말한 天地(천지)가 나와 더불어 同根(동근)이요, 萬物(만물)이 나와 더불어 同體(동체)라고 한 法語(법어)가 편이나奇怪(기괴)합니다.」  
 하니, 南泉(남천)이 뜰 앞의 꽃을 가리키면서 「세상 사람이 이 한 그루 꽃을 보고 꿈과 같다고 합니다.」하였다.』

그런데 陸大夫(육대부)는 이것을 錯覺(착각)하고서 편이나奇怪(기괴)하다고 하니, 南泉(남천)은 「한그루의 꽃이 꿈과 같다」고 한 것이다.  
 南泉(남천)의 이 말 역시 저 莊子(장자)에 「胡蝶(호접)의 꿈이 莊周(장주)의 꿈이 胡蝶(호접)이 되었느냐는 意味(의미)와 비슷하다. 이 말은 같으나, 뜻은 다르다는 것이다. 저 莊子(장자)가 「天地萬物(천지만물)은 自然(자연)」이란 것을 말한 것이라면, 肇公(조공)은 「天地(천지) 萬物(만물)이 곧 나의 마음이란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玉泉仙(옥천선)은 南泉(남천)이 一言之下(일언지하)에 「한 그루 꽃이 꿈속 같다는 것은 單刀直入의(단도직입적)으로 天地萬物(천지만물)의 根源(근원)을 파헤친 것이다」고 높이 評(평)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남천은 몇 겁이 지난 후에 그림자 없는 나무를 재배할 것 이라」고 거듭 평하였다.  
 陸大夫(육대부)는 과연 남천의 「한 그루 꽃이 꿈과 같다」는 無常(무상)한 法語(법어) 한마디에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라는 佛敎(불교)의 最上乘眞理(최상승진리)를 깨달았음인 지...

#### 뉴스 & 뉴스

##### 2월 초하루 법회 봉행

지난 2월 26일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2월 초하루 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주지스님은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선업을 닦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 인(因)과 연(然)과 결(果)로 인해 윤회가 되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나오므로 ‘모든 악은 짓지 말라. 제악막장(諸惡莫作), 갖가지 선을 잘 받들어 행하라 중선봉행(衆善奉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초하루 법문을 했다.  
 <글 조여래장>

##### 제 6회 불교 대학 입학식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선불장에서 한 달(12시간)동안 명원스님으로부터 기본 교육을 받은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학식이 있었다.  
 이날 학감 성만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여 부처님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수행하자. 또한 불교에 대한 옳고 그름을 타인에게 함부로 가르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석가사 성진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가 열리고 6월 27일 템플스테이로 1학기 학사 과정이 마무리 된다.  
 강의가 끝나고 입학생들의 선배인 목여회(회장 진여심)에서 준비한 다과를 함께하며 성진스님과 입학생들은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글 주향진성>



##### 경전반(법화경) 개강

3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청계사 선불장에서 지도교수 중앙승가대학 김응철교수와 불자 30여명이 경전반(법화경) 개강식을 봉행했다.  
 묘법연화경(동국역경원)의 첫 강의를 열리는 날로 한층 정경고 훈훈한 가운데 김응철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시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재의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전이 필요할 때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경전으로 이해를 넘어서 신앙을 위해 편찬된 경전이다”  
 일본의 남묘호렌게교는 우리의 ‘나무묘법연화경’이라며 법화경에 대한 집착사례도 알려주었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12주 동안 공부하게 된다.  
 <글 서용희수>



##### 출가·열반절 ‘다라니기도’ 부처님 닦기 실천

지난 3월 5일(음력 2월 8일)부터 3월 12일(음력 2월 15일)까지 부처님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맞아 8일 동안 수행정진 주간으로 삼고 신묘장구대다라니 집중 기도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청계 야외법당, 열반상, 선불장에서 부처님께서 출가수행하고 열반에 이르신 날을 기리어 그 큰 뜻을 되새기며 참회와 하심하며 수행의 자세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며 부처님 닦기를 적극 실천했다.  
 회향날인 12일은 합동전도재가 함께 봉행되어서 출가, 열반절 기도도 동참한 불자들이에는 더욱더 뜻깊은 수행정진 주간이 되었다.  
 <글 심대덕심>

##### 초봄 유료국수 봉사전개

지난 3월 19일 청계사 자비 나눔 봉사단은 14번째 이어오는 유료국수 봉사를 하게 됐다.  
 봉사단은 육수부터 부침개 재료까지 정성을 다해 국수잔치를 준비했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소년 소녀가장 돕기, 장학기금 등 자비 나눔에 쓰인다.  
 쌀쌀하면서도 햇살이 따스한 초봄 국수, 부침개 공양은 불자뿐 아니라 등산객들의 한 끼 식사와 더불어 봄을 느끼게 했다. 김숙경불자는 “불자들이 겸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잠깐이나마 봉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 또한 “요새처럼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수봉사에 동참해주신 봉사단, 불자와 등산객들은 국수도 먹고 보시도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글 공은자>

##### 분당경찰서 경승실장에 성행스님 위촉

지난 3월 10일 성남시 분당경찰서(서장 김혜경) 4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 직원과 경승실 불자(회장 최성권)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분당경찰서 경승실장에 주지 성행스님이 위촉되었다.  
 새로 경승실장에 위촉된 성행주지스님은 “경승실 세심정사를 부처님의 자비 실현을 위하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및 정신적 귀처로서 일체가 평등한 불교정신의 무차와 자비를 실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 조여래장>



#### 미리보는 성지

##### 부석사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도비산에 위치한 부석사는 당나라를 다녀온 의상대사가 그를 흠모해 바다에 투신한 선묘남자의 혼을 기리기 위해 지었던 설과 고려말의 충신 유극원이 망국의 한을 풀고 물러나 이곳에

하면서 선종을 펼치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심검당과 요사채, 산신각 등이 있으며 심검당 앞 부석약수는 유명하다. 극락전 봉안되어 있던 아미타삼존불은 1980년에 도난당하였다.

### 금동관음보살상 부석사로...

다 병당을 지어 독서삼매 하다가 그가 죽자 승려 적감(赤感)이 병당을 사찰로 변조하였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 마치 뜬 것 같이 보이므로 부석사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 장건 이후 조선 초기에 무학(無學)이 중건 하였고 근대에는 만공(滿空)이 주석

현제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상과 대체지보살상의 불두(佛頭)는 1330년 (충해왕 17)에 왜구에게 약탈되었던 듯하다. 부석사에서는 템플스테이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와 이름과 전설도 똑같다.

##### 개심사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상왕산에 위치한 개심사를 오르는 입구에는 마음을 열고 오르라는 ‘세심동’ 글씨가 보인다. 영주의 부석사, 고창의 문수사, 봉화의 청량사와 함께 국내 단풍 사찰로도 유명하다.

보물 제143호로 지정된 대웅전과 충남 문화재 자료 제 194호인 명부전 및 심검당 등이 있다. 이 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건물은 심검당이라는 요사채다. 대웅보

### 자연의 멋, 선인들의 지혜로운 마음

개심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수덕사의 말사이다. 651년(의자왕11) 해감국사가 창건하고 개원사라 하던 것을 1350년 처능이 중창 하며 개심사로 고쳤다. 그 후 1475년(조선 성종 6)불에 탄 것을 중창하였으며 1955년 전면 보수 하였다.

전과 같은 시기에 지어지고 부엌채만 다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규모가 크지 않은 개심사를 두고 ‘자연의 흐름을 한 치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마음껏 벗을 부린 옛 선인들의 지혜로운 마음이 표현된 절’ 이라고 말한다.

##### 간월암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에 위치한 간월암은 서해의 명소이자 낙조가 아름다운 암자다. 조선 초기에 무학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이곳에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때 만공(滿空) 스님의 의해서다. 1941년 스님이 불사를 매듭짓고 광복을 위한 철일기도를 드린 후 광복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관음전과 요사채, 산신각으로 이루어

### 작은 섬 속의 암자

는 데서 유래해 간월암 이라고 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작은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길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무학 대사가 떠나자 양반들은 절을 뜯어내고 명당이라 하여 묘를 지었다. 암자가 다시 세워진 것은 일제 강점기

져 있으며 관음전에는 용이 되어 의상대사와 부석사를 지켰다는 선묘와 흡사한 불화가 모셔져 있는데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무사귀환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정리 주향진성>





###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47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 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 관음성지@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 석가여래삼불좌상

‘송광사’ 하면 누구나 알린 전남 순천에 있는 조계산 송광사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전북 완주군 소양읍 대흥리 종남산에 자리하고 있는 송광사이다. 물론 두 절은 전혀 별개의 사찰이다. 하지만 아무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글은 물론 한자라도 ‘松廣寺’라고 같이 표기하고 있으니 필시 무슨 연유가 있으리라는 짐작쯤은 해볼 작하다.

완주 송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867년(경문왕 7)에 체징(體澄) 선사(僧)가 창건하였다. 완주 송광사가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통일신라 말이다. 보조 체징선사(普照 體澄, 804-880)가 설악산 역성사에서 수행하다가 선법의 요체를 구하려 중국에 유학을 가던 길에 백련사가 영험도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귀국해서도 가지산 보림사와 종남산 백련

사에 번갈아 거주하면서 도의국사의 선법으로 널리 교화했다. 이때 체징선사는 백련사를 선종의 종취에 따라 송광사로 개칭했다. 이래로 송광사는 사세를 면면히 이어왔다. 고려 중기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중국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천태종을 개창하자, 사명을 백련사로 다시 고치고 천태종에 귀속했다. 조선시대 임진·정유 양란 때 송광사는 전 소되었는데, 광해군 때 벽암각성(碧巖覺性)의 문도인 탁립화상이 주맹이 되어 응호, 승

### 순천 송광사와 한글·한자 표기 모두 같아 ‘인연’ 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선시대 대표 거대 소조 불상

명, 영정, 득순, 흥신 스님 등과 더불어 노력 끝에 중건하였다. 송광사개창비(1636년)에 따르면, 송광사는 인조의 적족(戚族)인 이취반(李就潘)이 폐허가 된 절터를 시주하였고, 보조국사 체징이 절터해 두었던 터에 1622년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에 7간 중층의 대웅전을 건립함으로써 초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종대가람(禪宗大伽藍)’으로 사액되었다고 했다. 송광사의 가장 유명한 불상은 진흥으로 조성한 석가여래상, 약사여래상, 아미타여래상 등 세 분의 부처님으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불상 가운데 가장 큰 삼세불상이다. 송광사 대웅전에 모셔진 이 삼불좌상은 본

존불인 석가여래를 중앙에 모시고, 좌협시(향우측)로는 약사여래를, 우협시(향좌측)로는 아미타여래를 배치하고 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국가에 나쁜일이 생길 때마다 맘을 흔리는 불상으로 유명하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때인 1997년 12월에도 맘을 흔렸다고 한다. 무량사 소조아미타불상(540cm)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거대한 소조불상(565cm)으로, 신체 각 부분이 비교적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장중하고 원만한 얼굴과 두껍게 처리한 옷

은 당당한 불상 양식에 걸맞은 표현 기법을 보여준다. 본존불인 석가여래상에서는 세 불상의 조성기와 『묘법연화경』을 비롯한 불경과 후령통(喉鈴筒) 등 다수의 부속품이 발견되었다. 불상 조성기에 의하면 승정 14년(인조 5년, 1641) 6월 29일 임금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던 소현세자와 불림대군의 조속한 한국을 기원하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로는 대웅전(보물 1243), 중루(보물 1244), 소조사천왕상(보물 1255), 소조삼불좌상 및 부속유물(보물 1274) 등이 있다. 〈정리 여백진〉



### 성행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생애 48

#### 마지막 유행

그 사이 각국의 사신들이 꾸시나라에 도착하였다. 부처님의 반열반 소식을 들은 마가다국의 아자따삿투, 웨살리의 락차위족 가벨라윳투의 사가족, 알라감빠의 불리족, 라마촌의 풀리아족 웨타디빠의 바라문들, 빼아의 말라족이 사리의 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 이십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 공양 할 수 있도록 사리를 나눠 주십시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반열 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백성들이 공양을 올려야 마땅합니다. 사리는 나눠 드릴 수 없습니다.” “멀리서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청하는데 거절한다 말입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욕됨을 참아가며 머리를 숙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사리만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되지 않는 일이라면 힘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겠군요.” “당신들에게만 군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와 꽃과 향이 넘쳐던 공화당은 어느 순간 작은 전쟁터로 변했다. 코끼리보다 용감하고, 칼과 창보다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발톱을 사자처럼 세웠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아자따삿투왕의 사신으로 온 도나가 입을 열었다. “자애로운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세존께서는 늘 관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분의 사리를 두고 사람을 다치게 할 전쟁을 일으킨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자애로운 여러분, 우리 모두 우정을 다지고 화목으로 하나가 됩시다. 부처님의 사리를 공평하게 나누어 온 세상에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웁시다.” 긴 침묵이 흐르고 꾸시나라의 말라족이 한 발 물러섰다. “덕망있는 그대가 부처님의 사리를 공평하게 나눠 주십시오.” 각각 사신과 비구들의 동의를 얻은 현명한 도나는 부처님의 사리를 여덟 등분하여 나누어 분배하였다. 그리고 사리를 분배할 때 사용한 용기를 두 손에 받쳐 들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애로운 여러분, 사리를 담았던 이 그릇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불신과 반목이 엄습했던 자리를 관용의 장으로 바꾼 현명한 바라문 도나의 간청에 모두 흔쾌히 승낙하였다.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마땅히 그대의 몫입니다.” 그들은 화장터의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돌아가 탑을 세웠다.

#### 우리절 명장면



◇새로 결성된 우담회봉사단의 꽃꽂이 첫 작품 〈사진·명원스님〉

#### 사찰음식 배워보기

#### 냉이 전

〈재료〉(2인분 기준): 냉이 100g, 메밀가루 (200ml) 1컵, 붉은 고추, 풋고추 각 1개, 굵은 소금 1작은술, 들기름 2큰술

〈만들기〉  
1. 손질한 냉이는 2-3cm 길이로 잘게 자른다.  
2. 붉은 고추와 풋고추는 조금 굵게 다지는 느낌으로 송송 썬다.

3. 그릇에 준비한 분량의 메밀가루, 굵은 소금, 물 4큰술을 냉이와 함께 반죽한다.  
4. 팬에 들기름을 두른 후 반죽은 한 수저씩 떠서 한입 크기로 부친다.  
\*냉이 전을 할 때 냉이의 맛을 충분히 즐기려면 메밀가루는 재료가 영길 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만 넣는다.  
메밀가루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전은 최대한 작고 얇게 부쳐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 〈정리 주향진성〉



#### 불살생과 방생의 공덕

### 생명사랑 이야기 100

#### 36 생명은 귀중하다

옛날 중국에 왕대림이라는 사람이 소수성에 살았다. 그에게는 모든 생명이 귀중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에 갇힌 동물들조차 값을 치러가며 우리에서 풀어주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물고기나 새, 심지어는 벌레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며 사서는 그대로 풀어주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자 아이들에게 말했다. “살생은 좋지 않단다. 새들이 숲에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신이 그에게 한 말은 이러했다. “왕대림, 네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것은 또한 너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너는 지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왕대림은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가족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그의 병은

###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행복해 하느냐!

서 얼마나 행복한지 보지 않았느냐? 그들을 잡으면 그 어미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생각해 보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행복해 하느냐. 물속에서 자유롭게 앞뒤로 헤엄쳐 다니지 않느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쁜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들을 잡아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더 이상 잘못하고 힘없는 생명들을 살생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왕대림이 가르친 것을 말했다. 그러자 부모들도 또한 그 취지를 이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대림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치유가 불가능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뒷자리를 준비해두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왕대림은 거의 죽음에 임박해 죽어가면서 어떤 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것이 죽는 것인지

사라져 버렸다. 왕대림은 그때 죽지 않고 97세 까지 살았다. 그의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모두 큰 가족으로서 그와 행복하게 같이 살았다.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고 모든 생명이 귀중하다고 믿었던 왕대림은 자신의 생명도 연장했고 다복했던 것이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평스님〉



## 부처님 오신 날



“중생은 번뇌의 어둠 때문에 지혜를 잃고, 여래는 방편으로 지혜의 등을 켜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다.” 『열반경』  
우리 모두 ‘번뇌의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의 등’을 밝히는 불사에 수희 동참 바랍니다.

-일년등-	-백일등-	-하루등-
극락전 지혜등 20만원	5만원	3만원
극락전 가족등 15만원		
삼성각 가족등 15만원		
지장전 영가등 15만원		
설법전 1인1등 1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주지 성행합장

청계사 하심정에서는 불자들과 참배객들을 위해 북 카페를 겸한 무인 찻집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들러 전통차와 담소를 나누며 지친 심신의 작은 쉼터가 되길바랍니다.

\* 개방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보시해 주시는 보시금은 연말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쓰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 주지성행 합장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거주인들 농구경기 관람

응원열기와 함성에 신나 탄성 지르며 즐거웠던 하루

녹향원에서 3월 12일 거주인분들과 같이 KBL 안양 KGC VS 울산 모비스와의 농구경기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거주인들은 큰 키의 농구선수들을 가까이서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치어리더의 응원에 신이 나서 같이 박수도 치면서 응원하였습니다. 응원열기와 함성에 더워진 아이들이 곁웃을 벗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구 규칙도 모르고 응원하는 법도 몰라 걱정했지만 금방 우리팀을 응원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이것을 때는 탄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거주인들 중에는 오랜만에 경기장에서 농구경기를 관람을 하니 재미있다고 다음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농구관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생활재활교사 윤성우>

2017년 1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월 1일부터 ~ 2월 28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수입 금액, 지출 금액, 전월이월금, 차월이월금. Total revenue: 3,667,570; Total expenditure: 1,871,246.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17년 2월 1일~2017년 2월 28일)

직접납부

- 후원금: 5,000원-가 진, 김중호, 정계영, 진 경, 최명자
후원금: 10,000원-김순임, 김영숙, 김학기, 무진성, 박경선, 박정현, 변일용, 손선중, 오유순, 유성화, 유수연, 유아미, 유종경, 이동호, 이재현, 이종호, 이흥순, 임현재, 정일환, 정도화, 최윤영, 태재준, 한유영, 성안스님
후원금: 20,000원-김상윤, 조점미
후원금: 50,000원-심경미

자동납부

- 후원금: 4,000원-박은정
후원금: 5,000원-김경숙, 김기범, 김미현, 박소용, 배윤경, 손종택, 심영화, 이환영, 한규용
후원금: 10,000원-권은경, 권은정, 김도희, 김선영, 김일남, 김창식, 김희용, 노경숙, 노석주, 문유경, 민창근, 박정수, 서연순, 손성순, 신영선, 신영원, 원영수, 원은희, 율정심, 유동채, 유인순, 윤미애, 윤석태, 윤석호, 윤오복, 이고은, 이구라, 이금선, 이종안, 이지희, 정현식, 조수현, 조화래, 조한진, 조현상, 조형근, 최근자, 최준병, 하용권, 한경원, 한금자, 현동순, 홍명희, 성담스님

※ 물품 후원

청계사-떡,과일,불고기 장미영-굴,팔기 청계사신도-김,라면,양말 강은주-삼겹살 원주추어탕-추어탕,김치
자경성보살님-빵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봉사단-딸기,빵 무기명-사과,떡,쌀,콩,사탕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완연한 봄날

어느 때처럼 변함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따스한 햇살 추운나날을 웅크리며 지내던 한절기가 물러가는 계절 우리에게 뭔가 모를 희망과 꿈 그리고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봄(春)! 겨우내 감춰왔던 새싹이며 꽃망울 그리고 산하대지에 푸른 기운을 들려주는 반가운 전령사인 것이다.
거주인들 중에는 오랜만에 경기장에서 농구경기를 관람을 하니 재미있다고 다음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농구관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행복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또 행복을 누릴 권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처해진 환경과 생활에 따라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그에게 그렇게 어려워서 욕심이 앞서니 내려 놓는 게 힘든 것이다. 방하착(放下着)하라는 경구가 있다. 모든 것은 집착에서 근원이 되는데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데 정말이지 어렵다.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말일수가 없다. 그러기에 소욕지족(小欲知足)하라는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인연의 소중함 알고 서로가 중요한 존재 인식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계속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또한 인연(因緣)인데 그 인연에도 선악(善惡)이 따르는 것은 우주의 이치이다. 선한친구를 만나면 서로에게 정말 행운인 것이고 악한친구를 만나면 서로에게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선한친구를 만나도 악한 행(行)을 한다면 행운이 아니라 비극이 될 것이고 악한친구를 만나 선한 행(行)을 한다면 그에게는 큰 복(福)이 아닐까.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교차되는데 그 또한 자기가 지은 업(業)으로 인해서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일

해답이 있다. 태어날 때 우린 빈손으로 왔으니 무엇 이 아까울까보나 조금 덜 가지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나와 이웃을 생각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리되면 더 많은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행복하게 서로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세상살이가 조금은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 나무 약사유리광 여래불-

생활의 지혜

- 폄찍 않는 병뚜껑 안전하고 쉽게 오픈하기
-넙은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기
-병을 거꾸로 뚜껑이 잠길 정도로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
-3분후 병뚜껑을 오픈하기 (병과 뚜껑 사이로 스민 뜨거운 물의 팽창 정도가 달라져 열림, 뚜껑 사이에 낀 이물질도 제거됨)
• 그릇의 불편한 흔적, 찌든 때 쉽게 벗겨내기
-컵이나 접시의 그릇을 물기를 제거하고 마른 수건이나 키친타월에 소량의

- 치약을 묻혀 찌든 때 부분을 닦아주면 깨끗해진다. (치약에 함유된 계면활성제와 연마제가 얼룩이나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됨)
• 냉동고기 제대로 녹이려면
-냉동고기를 육질 손상 없이 빨리 해동하고 싶으면 섭씨 40도 정도의 물을 담은 그릇에 실탕 두 큰 술 정도 녹인 다음 고기를 10분간 넣어두면 잘 녹고 맛도 좋다. <정리 공은정>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달의 운세

Table with 4 columns and 2 rows. Colum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cell contains a zodiac sign icon and a brief fortune prediction.

<정리 공은자>